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1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2월 6일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홍성2차승원팰리체.com

尹 "전남 국립의대 설립, 대학 정해주면 추진"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현안 전폭 지원 약속
'한국의 아우토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을 찾아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현안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가 설립된다. 민생토론회를 위해 전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국립 의대가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인지를 전남도가 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관련기사 3면〉

전남 서부권(국립목포대)과 동부권(국립순천대)이 모두 유치를 바라고 있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중재로 지난 1월 공동 단일 의대 추진에 나서기로 했으나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향후 정부를 상대로 공동 단일 의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농·축산업 첨단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등을 모두 언급하며 전남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에 국립 의대가 있어야 완결성을 갖고 작동할 수 있다며 국립 의대의 시급성을 언급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요청 뒤에 이뤄진 마무리 발언에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이어진 언론 사후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전남으로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다"며 "어느 대학이 할 건가부터 정하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임기중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립 의대는 지난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사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 수술길'에 올라야 하는 현실을 들어 국립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30년 넘게 호소해왔다. 전남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화한 이후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한 의대유치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문가·경제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300여명 규모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30년 숙원 사업 실현에 공을 쏟아왔다.

전남도는 윤 대통령의 '국립 의대 설립' 추진 방침을 계기로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이미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동 유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단일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정원 100명 이상의 취약지 맞춤형 국립의대의 경우 3만4520㎡ 규모의 부지에 조성하는데 국비 98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약속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가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며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이 연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K-디즈니 사업)도 언급하며 "지난해 순천만정원박람회 행사 때 관련 건의를 받고 문체부에 바로 지시해 올해 예산에 193억원이 반영됐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대교수 사직위기 '고조'…정부, 증원배분 "비수도권에 80%"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의대교수들에게는 병원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각각 호소하는 한편,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좀처럼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던 전공의들은 전날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해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 '삶의 질' 세계 19위…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

유엔 인간개발지수 보고서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9위를 차지했다.

UNDP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2024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2년 기준 0.929로 집계돼 조사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9위로 평가됐다. 20위였던 전년도보다는 한 계단 올라선 결과다. 한국은 2009년 26위에 오른 이래 2010년과 2012년 전체 12위를 기록하는 등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HDI는 국가별로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한국의 2022년 기대수명은 84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이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만6026달러로 평가된다고 UNDP는 적었다.

한국보다 세 계단 낮은 20위(0.927점)에 머무른 미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78.2년으로 선진국 가운데선 상당히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4년과 13.6년으로 한국과 비슷했으나, 1인당 GNI는 6만5565달러로 훨씬 컸다.

스위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HDI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인의 기대수명과 평균교육연수는 한국보다 0.3년과 1.3년씩 길었다. /연합뉴스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289억원 투입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 물가 체감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액을 289억원으로 85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형마트 3사 등에 "농식품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일·채소의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04억원에서 289억원으로 확대했다. 13개 품목 중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대파, 배추 등의 납품단가 지원액을 1.5~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달과 다음 달 소비자 할인 행사 지원에는 2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추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공무원들도 악성 민원에 '골머리' ▶6면
북스 - '색채학의 50가지 비밀' ▶14·15면
2024~2026 세계관광문화대전 전남으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대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Trade-in 프로그램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1년/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